

기준으로 각각 연령표준화를 한 HBsAg 양성률은 경남지역 대상자는 5.7%(남자 7.7%, 여자 4.9%), 충북지역 대상자는 3.1%(남자 6.0%, 여자 2.0%), 강원지역 대상자는 3.6%(남자 4.9%, 여자 3.2%)로, 경남지역 주민들의 HBsAg 양성률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Anti-HBs 양성률은 경남지역 대상자는 58.3%, 충북지역 대상자는 58.7%으로, 강원지역 대상자의 49.0% 보다 높았다. HBsAg 양성률은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60세 이상 노인군이 59세 이하의 장년층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OR=0.47, 95% CI=0.34-0.66). 수혈과거력과 침맞은 과거력은 B형간염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군이 예방접종을 받은 군에 비해 HBsAg 양성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51, 95% CI=1.67-3.77).

결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지역간 HBsAg 양성률의 차이가 있음을 알았으며, 특히 경남지역 주민에서 HBsAg 양성률이 높았다. 이 지역은 통계청 사망자료에 의하면, 간암사망률도 유의하게 높은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60세 이상의 노인층보다 59세 이하 장년층에서 HBsAg 양성률이 높으므로, B형 간염은 아직까지 주요 보건문제로 지역사회 보건관리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HBsAg 양성자들에게 대해서는 간암의 조기발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2004년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0110250)으로 이루어진 것임.

KSPM-120

경상남도 일부 농촌지역의 간흡충증에 관한 역학적 연구

Epidemiologic study of Clonorchis sinensis Infection in a rural area of Kyongsangnam-do, Korea

주영희¹⁾, 신해림¹⁾, 오진경¹⁾, 공현주¹⁾, 손운목²⁾, 김윤규³⁾, 김정일³⁾, 정갑열³⁾

(1) 국립암센터 연구소 암역학관리연구부, (2)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3)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목적: 연충류 감염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주요 보건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연충 감염증은 간흡충증이다. 그러나 간흡충증은 유행지를 중심으로 고도 감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소 하천 유역에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행지에서는 간흡충 감염과 연관된 담도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간흡충 감염이 높았고, 간암사망률이 높은 낙동강 및 남강 하류에 위치한 경상남도 일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흡충 감염실태와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경상남도 H군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개 면씩 4개 면을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1,942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채혈 및 대변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구사회학적 사항, 건강행태 및 병력사항 등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잘 훈련된 조사자가 개인 면접을 하였으며, 혈액을 채취하여 간기능(ALT, AST)검사를 실시하였고, Formalin-ether 침전집란법으로 대변에서 간흡충 감염자를 파악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 1,942명 중 남자가 790명(40.7%), 여자가 1,152명(59.3%) 이었으며 남자의 간흡충란 양성률은 36.5%(95% CI: 33.1-39.9)이었고 여자는 27.7%(95% CI: 25.1-30.3)이었다(p<0.05). 연령군별 간흡충란 양성률은 30대에서 25.3%, 40대에서 30.9%, 50대에서 33.1%, 60대에서 32.7%, 70세 이상에서 26.1%이었다(p>0.05). 간흡충란 양성률과 간기능효소인 ALT와 AST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민물고기를 생식한 적이 있다는 대상자의 간흡충란 양성률은 31.7%이었고 생식한 적이 없다는 대상자의 양성률은 28.1%이었다(p>0.05). 간흡충란 양성률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연령, 음주, 흡연, 민물고기 생식 과거력, 간흡충증 과거력, 담석증 또는 담낭염 과거력을 보정하였을 때 현재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간흡충란 양성률이 1.6배(95% CI= 1.3-2.1) 높았으며, 과거에 술을 마셨으나 지금은 끊은 경우는 1.7배(95% CI= 1.1-2.7) 높았다. 그 이외의 요인들인 성별, 연령, 흡연, 민물고기 생식은 간흡충 양성률과 연관성이 없었다.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낙동강 및 남강 하류에 거주하는 H군 주민들의 간흡충 감염률이 아직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간흡충 유행지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2004년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0110250)으로 이루어진 것임.

KSPM-126

연도별 지역별 표준화결핵사망률 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rend of age-adjusted tuberculosis mortality rate over years

강문영¹⁾, 나백주¹⁾, 홍지영¹⁾, 이무식¹⁾, 김건엽¹⁾, 김대경¹⁾, 오용영¹⁾

(1)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결핵으로 인한 국민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전국보건소를 근간으로 국가결핵사업이 시작되어 전체 환자발생 및 유병율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매년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며, 3천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사망하고 있어 감염성 사망원인 중 유일하게 전체사망원인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결핵사망률은 OECD가입 30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선진국 일본(2002년 1.8명), 미국(2001년 0.3명) 등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2002년 7.0명)는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결핵환자 감소율은 2001년-2002년의 감소율 6.8%, 2002년-2003년의 감소율 4.8%를 보임으로써 결핵환자 감소율이 다소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결핵사망률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하여 연령별 결핵발생률 분석 정도가 대부분으로 지역별 연도별 결핵사망률을 표준화한 연구나 지역적으로 결핵 발생률 차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적 결핵사